



7면

익산시 "코로나19 차단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 필요"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음 7월 9일) 제26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코로나·태풍·의료파업·폭염 '비상'

송 지사, 긴급 대책회의... 실국별 대처 상황 점검 도민안전 최우선·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응 주문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태풍의 비상 의료파업과 폭염 등 현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선제적 예방과 점검 조치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피해 예방과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송 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및 태풍 대비 중대본 영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해 시군 태풍 대비 상황 실국별 태풍 대처 상황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복상하는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폭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과 점검조치를 비롯해 이재민 대피시설 등 피해 대비책도 미리 준비하고 위험지역 출입통제와 주민 대피 등 국민행동 요령 등을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해 달라"며 "재난 발생부터 복구까지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를 24시간 상황관리 및 비상체계를 유지, 실국별로 신속한 상황 파악과 함께 응급복구, 피해조사도 신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강화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유명 업소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업소는 강력 행정조치하고 타지역 방문객이 즐겨 찾는 맛집 등도 합동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3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람들 간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만큼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까지 전 직원 1/3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송 지사는 의료계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상황실 운영으로 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 제공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전북 도는 3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로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국립공원 등 도내 12개소 전체 탐방로 112노선을 입산 통제했고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둔치주차장 7개소 출입 통제, 풍랑피해 예방을 위한 3.164척 어선이 피항했다.

/유호상 기자



중대본 회의 참석해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8호 태풍 바비(BAII)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전주시, 스쿨존 무인 단속카메라 늘린다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북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속도·신호위반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학교는 ▲전

주교대부설초 ▲중산초 ▲서일초 ▲여울초 ▲신화학교 ▲서곡초 ▲지곡초 등 완산구 권역 7곳, ▲전일초 ▲반월초 ▲조촌초 ▲북일초 ▲미산초 ▲인후초 ▲북초 ▲자연초 등 또덕진구 권역 8곳이다.

시는 연말까지 6억4500만원을 확보해 속도·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2021년에는 80대, 2022년에는 35

대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모든 초등학교에 단속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산 내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80 캠페인'을 시행하고, 노란 신호등과 음향신호기 등을 설치해왔다. 또한 시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운영해왔으며, 풍납초 등 6개 초등학교에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도,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 3333억원 규모 세번째 추경

전세버스 50만원·관광업계 최대 400만원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3333억원 규모의 세 번째 추경을 편성했다.

26일 도의회에 제출된 제3차 추경 예산은 2회추경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올해 1차추경은 2455억원, 2차추경은 78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 종사자 50만원 ▲관광업계에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과 예술가 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등 현장 신청수요도 전담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사업도시' 등의 중앙 공모사업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의 현안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3,333억원 가운데 일반회계 3,308억원(4.6% ↑), 기금 25억원(0.2% ↑)이 편성됐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2,000여명에게 택시·화물업계 지원 이후 운수종사자 지원대책 두 번째로 생계비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문화예술인 516명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공공장소 미술작품 설치,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군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도비 58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6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570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특별보증과 이차보전 2%를 지원하는데 도비 7억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기존 발행액 8%,184억원)과 하반기(익산 완주 장수 임실,예정액의 4% 108억원) 추가 발행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비 287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여

행사숙박업,관광식당 등 1,252개소 관광업계에 종사원 수를 기준으로 2백만원~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12억원을 반영했다.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덜어주고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리 0.2%를 우대·지원하기 위해 도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난 1.2차 추경에 지원된 소상공인 공공요금(60만원), 카드수수료(매출액 0.8%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공제지원금(연 12만원)도 추가로 반영해 현장수요 신청 전담을 해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 실직자 대상 환경정비 공원시설관리 등 1만 여명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국도비 425억원을 반영했다.

산림내 불법 폐기물 조사,수거 등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13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국도비 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도내 주요 관광지 방역소독에 280명을 고용(1인 월 180만원)하기 위해 17억원이 반영됐다.

전북대학교에 음압병실 확충(6개 병상)을 위해 국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 치료를 위해 시,군 보건소 등에 국비 18억원을 투입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18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외,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우선 반영해 시,군별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항구복구는 9월 국가지원 계획이 수립확정 되는 즉시 도 예비비를 활용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